

MK 1 on 1 사역: Mentoring

[1 슬라이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페루에서 온 탁영준 선교사입니다.

귀한 분들을 멀리 이 곳에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페루에서 저희 부부에게 담당시켜주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에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계신 분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내가 왜 지금 KWMC 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답 안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미소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며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멘토’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가까이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멘토가 있다면 멘토를 자주 만나는 게 좋고요.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쁘고, 삶에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가 더 많아 집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된 것은 선교지에 나와 보니까 고비 때, 어려울 때, 지혜가 없을 때 멘토가 계심이 더 갑절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만남에는 절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떠나 보내야 할 때도 축복하며 보낼 수 있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절대 과장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2 슬라이드]

성경에서는 성도의 만남, 저는 멘토를 만나면서 다음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서 소개합니다.

로마서 1:11-13

멘토를 만날 때 얻는 유익 3 가지 입니다.

1. 서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 (롬 1:11)
2.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 (롬 1:12)
3. 열매를 맺게 함 (롬 1:13)

[3 슬라이드]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저를 멀리 떠나 보내면서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간절하게 해주신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대로 주님은 제게 세 분의 멘토부부를 차례대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는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Seattle 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James 할아버지

제가 CA 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Richard 목사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페루에서 MK 사역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멘토 김철민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 분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 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고요. 아버지이시자 남편이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만남을 가질 경우 멘토 부부께서 함께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사실은, 제가 다니던 워싱턴 주에 있던 교회에서, 캘리포니아 신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를 통해 세 분을 따로 알게 되었는데 세 분의 멘토가 각 각 다른 회사에서 항공과 우주항공 엔지니어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기밀 프로젝트를 담당하신 훌륭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지만, 부족하고 고집 센 저를 자주 만나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지혜를 나눠주신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의 모델로 저에게 큰 영향력을 주신 멘토들이십니다.

지금은 CMF 선교원의 대표이시자 저희 부부의 멘토 김철민 장로님과 사모님 김명자 전도사님 내외 분을 통하여 항상 저와 제 아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4 슬라이드]

이제 MK 들과 1:1 멘토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개하고 멘토링은 MK 들에게 필요한 ‘성경적 관계 사역’인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가 지금도 언제든지 연락을 드리면 한결같이 웃으시며 맞아 주시는 멘토 김철민 장로님께 배우며, 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MK 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 부부에게 맡겨 주신 MK 사역을 할 때, Hilltop 로고를 디자인 할 때 핵심적인 요소를 넣어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몇 가지 아이템이 눈에 들어 오실 겁니다.

먼저 언덕이 있고요. 역동적인 MK 가 보이고, 십자가, 성경, 지팡이도 보일 겁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지팡이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지팡이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지팡이(staff)’입니다.

정확하게는 양 무리를 이끄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툭툭 쳐주며 바른 길로 가게 해줍니다.

때로는 ‘지팡이’는 무기가 되어 늑대 같은 야생동물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멘토링’은 지팡이와 같이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페루와 남미 땅을 보여 주셨고, 한 울타리를 담당하라고 맡겨 주셨고, 그 안에는 갓 돌이 된 양부터 33 살 된 양들을 시간이 허락 될 때까지 충성으로 담당하는 것 입니다.

더 귀한 것은, 14 년동안 페루와 동유럽과 영국, 동남아를 비롯 제 31 회 동안 CMF MK 수련회를 통해 만난 MK 들과 지속적으로 교제가 되게 인도해주셨고, 비록 MK 들이 파송 받은 나라, 문화, 언어는 다르지만 ‘MK 정체성’ 하나만 있어도 또 직간접적으로 선배 MK 들이 후배 MK 들에게 Mentoring 을 해줄 때 더 진하게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5 슬라이드]

그렇습니다. 멘토링은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꼭 필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MK 를 위한 멘토링에는 저에게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저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까지 바꾸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MK 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Counseling 도 해야 하고, 제가 알고 지식의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Teaching 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루틴을 만들고, 잘하고 있는 MK 들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MK 의 은사를 발전 시킬 수 있게 Coaching 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MK 들이 질문과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이 Counseling, Teaching, and Coaching 모든 영역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Discernment’ ‘분별’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K 같이 신앙적인 배경과 선교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신 분들과 교역자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 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진리와 거짓, 선하고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리고 교묘한 악한 영”을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위 언급한 네 가지 사항들에 한 가지가 빠지면 마음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신앙 생활을 조금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쉽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만나고 대화 나누는 MK 는 당장 그것을 잘 모를 수 있거나,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자기의 마음을 열었을 때는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사랑을 먹은 MK 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저를 다듬어 주신 멘토들도 제가 마지막에 품고 지키는 것은 그 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했을 때 MK 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삶의 등불이요 나침반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6 슬라이드]

저희 부부가 MK 들과 멘토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3 가지 원칙을 세우고 MK 들에게 ‘목자의 지팡이’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입니다.

멘토는 멘티 MK 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회개, 기대, 소망, 목적)을 겸손하게 구하도록 돕습니다.

MK 들이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말들을 합니다.

A: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제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B: 지금 마음이 미치겠습니다. 그 친구 생각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맞습니까?

C: 제가 미국 대학가는 꿈을 접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 3:5)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6)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 3:7)

A MK 에게 절망보다 희망을, 말씀에서 교훈을 얻도록 돕습니다.

B MK 의 첫 사랑: 20 가지 이유 쓰기, 3M (Master, Mission, Mate)를 설명해 줍니다.

C MK 의 꿈, 비전,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는 믿음을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입니다. (바울의 자족)

[7 슬라이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 하기

멘토는 문제 해결점을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멘티 MK 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 구덩이를 만들고, 덫을 설치하고 잊어버리고 생활하다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항상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점검 하며 생활하는 MK 들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과 ‘행할 것’을 다시 새겨 보도록 돕습니다.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8-9)

A: 우리 아빠랑 말이 안 통해요. 진짜 곤대 예요. 우리 엄마 완전 달라요. 교회하고 집에서. 금방 기도하고 와서 막 소리 질러요. 기도한 거 맞어? 이해할 수 없다니깐요. 우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B: 학교에서 오면 게임하고, 혼자 있으면 야한 것 보고, Instagram 보고, 찍고, 올려요.

C: 교수님도 저를 차별하고, 친구들도 저를 멀리해요. 저 빼고 모두 욕하면서 말해요. 무서워요. 진짜 학교 가기 싫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다 (시 119:10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딤후 4:5)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 14:28)

A MK: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 속에서 장점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가족은 그것을 덮고 보완해 줄 수 있을 때 상대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B MK: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C MK: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 해줄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8 슬라이드]

MK 들에서 배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MK 들의 은사를 발견했을 때 입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페루에서 모든 환경이 부족하지만, MK 가 방송 기자를 지원했습니다. MK 기자님이 부모 선교사님들을 인터뷰하고,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면서, MK 들의 부모님을 향한 RESPECT 이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지만, 한 MK 가 자원하며 피아노로 예배를 섬기기를 원하더니,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에서, 페루에서 각자 연주한 것을 녹화를 한 다음 MK 찬양을 준비합니다.

MK 들이 음악, 미술, IT, 수학, 통번역, 법, 의과로 실력을 담금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임 받은 예술가이자 장인들이었습니다.

MK 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언어, 문화, 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9 슬라이드]

멘토링은 대학생 이상 MK 들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대 MK 들에게는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매주 정기 만남, 30 분), (1:1 성경공부, 1 시간) 오차 3 분을 넘기지 않으며 삶과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MK 들이 성경 통독과 Q.T.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MK 예배 중에 마음을 만져주시는 MK 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면,

저희 부부가 함께 개인적인 약속 만남을 갖고 어린 MK 들에게는 매일 간단한 Q.T.적용 노트와 사춘기 MK 들에게는 매일 ‘감사조건’과 ‘결단 사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K 들이 학교 성적들이 쑥쑥 올라갑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보다 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긴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MK 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채워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MK 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힘들었던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실 때 우리 MK 들의 기도가 바뀌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선교는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은 제게도 몇 배의 감동이자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10 슬라이드]

저희는 멘토링을 하면서 매일 함께 배웁니다. 마음이 순수한 MK 들한테 배웁니다. 빨리 순종하는 MK 에게 배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MK 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걷어가는’ 기쁨을 저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Mentoring is learning by walking together. 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MK 들이 주 안에서 함께 나누고, 도전 받고,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